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 (평신도, 교회의 주체)

강아비가일 목사

- Kang Abigail Shepherd -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숫자놀음에 빠져 스스로의 문제를 볼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래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사회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부끄럽게도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목회자들은 너무나 타락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교회 문 안에서 패를 가르고 싸우고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많다. 가치관과 양심이 왜곡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의 본질마저 퇴색되어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차세대 목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교회가 당대의 소망의 빛으로 타올라야 한다. 그럴 때 썩어버린 이 사회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만 제대로 서면 교회를 만난 사람들이 제대로 서고, 거룩한 삶이 갖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날 것이다.

나는 기성교회의 장년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 목회의 성경적 근거를 찾으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3년간 깊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회를 공부하니, 평신도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기본 개념은 첫째, 택함을 받은 자의 모임. 둘째, 그리스도의 몸. 셋째, 성령의 전이다. 이것들은 모두 교회라는 단어 대신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내가 교회의 기본개념을 공부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목회자

와 평신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이였다. 나는 특별소명을 받고 안수받았다는 목회자는 분명히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내가 자라온 교회 환경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택함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기본개념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근거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고전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성도라는 말이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것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직분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결코 신분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니 나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평신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기본개념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근거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몸을 통해 일하신다. 팔레스타인에서 3년간 일하셨을 때에는 자신이 입으신 몸으로 일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하셨다. 따라서 교회가 병들면 주님의 몸이 병드는 것과 같다.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 잘 움직이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회이다.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면, 그가 받아야 할 심판은 얼마나 크겠는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목회자가 어느 부위를 차지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몸을 세우고 건

강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부위라는 것은 확실하다. 지체들은 절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한다. 남이 없으면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 남이 죽는 유기적인 관계인 것이다. 이것은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평신도가 없으면 목사도 없고, 목사가 없으면 평신도도 없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기본개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별이 되는가? 아니면 목회자가 모시고 있는 성령은 특별히 뜨겁고, 평신도가 모시고 있는 성령은 덜 뜨거운가? 성경 어느 곳에도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차별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단상의 설교자나, 단하의 청중이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동일하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평등하다. 직분에 따라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나는 이 세 가지 기본개념을 공부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바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이었다. 나와 평신도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사역이 시작되었다. 목회를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평신도를 나와 똑같은 교회의 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진실 앞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역자들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레위 지파입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부각시켜 평신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마치 목회자가 대단한 영적 능력이라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허리를 굽신거리며 하나님 대하듯 목회자를 대한다. 좋은 차를 뽑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이 시승해야 한다는 이상한 불문율도 한국 교회에는 존재한다. 교인 천 명만 모여도 목사는 제왕이 되어버린다. 잠깐만 긴장을 늦추어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다. 그래서 나는 늘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서 목회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바울은 ‘각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목회의 원형이다. 그가 생명을 걸고 목회한 사람은 천명이 아니었다. 수백 명도 아니었다. 한 사람이었다.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이다.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이 가진 가치를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이다. 왜냐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사람은 정작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도가 사회 속에서 제구실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다. 평신도가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아부나 하고 비실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 한다면,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실현할 것인가? 목회자인가? 몇 명의 선교사인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영원토록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은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니다. 바로 전 교회(the whole church), 모든 평신도들이다. 평신도들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사회 밑바닥까지 전해지고 확산될 수 있다. 목회자 몇 사람의 특별한 역량은 짧은 부흥회 기간에는 빛이 날지 모르지만, 평신도의 역량은 끝이 없다.

평신도가 제구실을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라. 얼마나 많은 가능성 있는 평신도들을 할 일 없이 놓고 있게 하는가. 심부름이나 시키고, 조직을 만들어서 감투나 씌우고, 목사 말 순종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일주일 내내 모임 만들어서 열심히 출석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말이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예가 허다하지 않은가. 똑같이 투기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평신도를 보는 관점이 왜곡되다 보니, 목회자들의 리더십도 왜곡되었다. 한

국 교회의 리더십은 대부분 닫힌 리더십(closed-leadership)이다. ‘나는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닫힌 리더십이다. 늘 자기 혼자 일할 생각만 한다. 평신도가 목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린 리더십(opened-leadership)이 필요하다.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일할 사람은 평신도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 전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은 평신도이다. 이때 평신도는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 함께 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리더십이 열린 리더십이다. 열린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는 평신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한다. 예배만 보고 가는 군중으로 만들지 않는다. 헌금이나 많이 하는 후원자로 만들지 않는다. 평신도들을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훈련한다. 주일 설교 30분으로 일시적으로는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려면 설교 30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라면 교인들은 이원론(二元論)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평신도들이 이미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는 자기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한다.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똑똑한 젊은이들만 보면, 세상에 나가 예수의 제자로 바른 구실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라고 한다. “한 번뿐인 인생, 주의 일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 일 하며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한다. 목회자들이 이원론을 조장해 왔다. 성경 속에 어디에 이러한 이원론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단 말인가. 파라처치(복음주의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노력해 온 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원인이 모두 이 이원론에 있다. 대학부나 선교단체 전체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사람이 결국 10%를 넘지 못할 텐데, 직장에서 어떻게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기보다 몇 사람의 사역자 후보생들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고,

사역자가 되지 못한 미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된다. 패배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길바닥에 함지를 내놓고 행상을 하는 사람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장, 정치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의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똑같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나의 어머니는 주일 아침이면 흐느끼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다가 이제 주님 전에 나와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드리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졌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세상 일은 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구나.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 게 좋은 거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타락한 중세 교회들이 성직자의 사명만 지나치게 중시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교인들을 속박하고 노예화하는 이원론이 여기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뿌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인제사장직에 따르면, 모든 평신도는 똑같은 소명자이다. 모든 성도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가 접하는 것은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노예가 노예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두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가슴을 까맣게 타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목회자들의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한다.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의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밑바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은 한명의 교역자가 아니요 전 교회 모든 평신도임을 알았습니다. 평신도가 제 구실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본문에 노예가 노예로 사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받고 10년 싱글 목자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양도 쳐왔고 팀목자도 해왔고 풀타임도 해왔고 선교훈련도 받았고 개척멤버로 뛰어왔습니다. 복음역사의 최전선에서 뛰다가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고 육아를 감당하고 남편을 섬기고 과외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쏟아질 때 주의 일은 힘쓰지 못하고 내 것만 꾸리는 것 같은 죄의식으로 항상 눌러있었습니다. 캠퍼스 양을 치는 것이 주의 일이요 그 외의 주부로, 엄마로, 와이프, 선생으로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은 세상일, 비 영적인 일, 목자로 살지 못하는 회개거리 정도라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무한반복의 육아속에 미래의 주역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일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옥함흠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선배들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신도들을 제자리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심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의 개인신앙도 훌륭해야 하지만 다음세대의 사람을 세우는 역할과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평신도 한사람으로써 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남편에게, 3명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동역자들에게, 양들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동역자가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거룩한 제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